

여호수아(13)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 본문

수 10:8-14

■ 시작 찬송가

302장(통 408장)

■ 헌금 찬송가

325장(통 359장)

▶ 길갈

길갈은 요단강 남단 언덕으로부터 약 8km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을 친 첫 속영지 이재(수 5:10)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한 전초기지였다.

압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 전투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며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강력한 연합군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강한 민족이었으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며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도시국가들은 연합하여 그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을 위해 전쟁에 나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압승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겨우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식

이스라엘은 연합군에게 공격받는 기브온의 요청을 듣고 그들을 향해 올라갑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밤새도록 올라와 연합군에게 갑자기 이르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습공격을 의미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온 전쟁에서 기습공격하는 방식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기습공격 없이 7일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날 크게 소리 지르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상대하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방식은 상상해 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상대할 때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수 10:8-9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 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할 때 우리는 바다에 길을,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출 14:15-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 혼란 속에 잔잔함을 주시는 능력

기브온을 공격한 연합군은 갑작스러운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에 놀라서 패배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패하게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성경을 보면 'confusion(컨퓨전), 혼란스러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은 연합군에게 혼란을 가져다주었고 이는 곧 패배의 전조였습니다.

수 10:10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륙하고 벧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새벽에 기습은 당한 연합군은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신없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여 서로 다투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두려워하던 중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큰 풍랑은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큰 에너지였지만 예수님은 더 큰 힘으로 그것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막 4:38-39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 잠잠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습을 당하고, 세상이 날뛰며 풍랑이 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잠잠함으로 혼란 속에서도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3) 위대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으로 혼란에 빠진 연합군은 도망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박 덩어리를 내려 이스라엘이 기습하여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해를 멈추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압승할 수 있었습니다.

수 10: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사람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태양이 멈춘 사건을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 기도에 응답해 줄 수도 없는 작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욥 38:1-4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실 수도 있고, 해를 멈추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 10:14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은혜

이스라엘은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 나간 전장에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혼란 속에서 잠잠함을 누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무후무한 은혜의 고백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 평안한 것은 능력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능력입니다.

혼란스러운 속에서 잔잔함을 갖는 것, 평안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수준 높은 능력입니다.

(2018.11.04. 주일찬양예배 중)

오늘의 한마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자!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